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항만연구단 물류항만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0.4 현재 122개 업체)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 배포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목 차 >

□ 인도 Minor Port에 석탄부두 건설 활발	2
□ 이라크 Fao항에 대형 항만 개발	4
□ UAE Khorfakkan항, 「컨」터미널 3단계 개발 추진	5
□ 베트남 Haiphong항 Lach Huyen Seaport 개발에 일본 Itochu사 참여	6

□ 인도 Minor Port에 석탄부두 건설 활발

○ 인도 석탄시장 수급동향

- 인도 정부는 2010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8.5%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현재(7,440억 KWH)의 3배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인도의 전력 생산 에너지별 분담률은 석탄 55%, 수력 15%, 가스 8%, 원자력 2.5%의 순
- 인도의 석탄매장량은 2,460억톤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국내 생산량이 국내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여 대부분 호주와 인도네시아로부터 부족분을 수입

< 연도별 석탄 수입량 추이 및 예상 >

단위 : 백만톤

FY 2007/2008	FY 2009/2010	FY 2010/2011	FY 2011/2012
54.02	60	81	100

○ 인도의 주요 석탄부두 건설 추진현황

- 지금까지 인도의 석탄 처리 항만에는 5만~7만 5천톤급 Panamax 또는 Handysize 선박의 접안만 가능하여 하역시간 과다 소요 및 체선 · 체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
- 그러나 주정부가 관리하는 주요 Minor Port에서 민간 사업자가 당해 주정부와 항만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장기 Concession 계약을 체결하여 15만톤급 전후의 Cape 선박 접안이 가능한 석탄부두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 중
- 모두 완공시 인도 전체의 석탄 하역능력은 연간 1억 9천만톤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



○ 석탄부두 건설 추진 주요 Minor Port 개요

< Krishnapatnam항 >

- 인도 두 번째 컨테이너 항만인 Chennai항에서 북쪽으로 180km 떨어진 곳에 위치
- Krishnapatnam Port Company가 50년 BOST(Build-Operate-Share-Transfer) 조건으로 Andhra Pradesh 주정부와 50년 운영권 계약(Concession)을 체결하여 운영 중
- 2011년말까지 400억 루피(약 1조원)를 투자하여 연간 하역능력을 8,000만톤으로 확충할 계획

※ Krishnapatnam항 관련 추가 자료는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16호(2009.9.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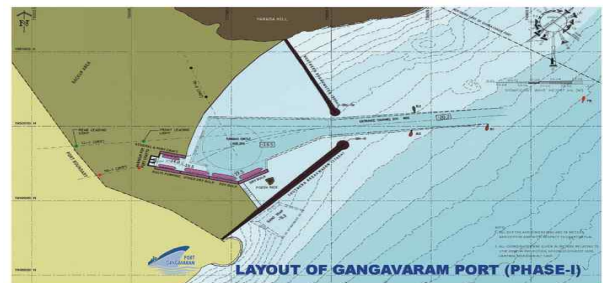
< Mundra항 >

- 인도 서북부 Gujarat주에 위치한 인도 최대의 민간항만으로서 1998년 인도의 Adani Group이 주정부와 Concession을 체결하여 민간자본으로 항만 개발
- Mundra Port and Special Economic Zone Limited(MPSEZ)가 항만운영사
- 현재의 연간 시설능력 3천만톤을 2011년말까지 두 배인 6천만톤으로 확대할 계획



< Gangavaram항 >

- 인도 중동부의 Major Port인 Visakhapatnam(약칭 Vizag항, 2009년 6,391만톤 처리)에서 남서쪽으로 불과 6 마일 떨어진 Andhra Pradesh주의 신생 민간항만
- Raju 컨소시움이 180억 루피(약 4,500억원)를 투자하여 2011년까지 연간 3,500만톤 처리능력의 항만으로 개발 중, 항만운영사는 Gangavaram Port Ltd(GPL)



자 료 : Krishnapatnam Port Company, MPSEZ, GPL, Alibaba.com 2010.3.24

□ 이라크 Fao항에 대형 항만 개발

- 페르시아만(Persia Gulf) 제일 안 쪽에 위치한 이라크는 쿠웨이트와 이란 사이의 불과 약 50km에 달하는 짧은 해안선을 보유
- 이라크는 지금까지는 Umm Qasr항을 이용하여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여 왔으며 프랑스 선사인 CMA CGM사가 이라크 전체 물동량의 약 1/3을 담당
- Umm Qasr항의 컨테이너 선석은 150m, 수심 11m로서 2006년부터 CMA CGM사가 운영



- Fao항(일명 Al Faw항) 개발계획
- 이라크 교통부(Transport Ministry)는 2010.4.5 이탈리아 엔지니어링사인 Technital 컨소시움(이탈리아 건설사 포함)에게 Fao항 개발계획 설계를 발주
- Fao항은 수도 Baghdad에서 남쪽으로 535km 떨어진 지역(기존 Umm Qasr항에 인접)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항만과 이라크 북부 터키 국경을 연결하는 철도망도 건설 예정
- 사업권자인 Technital 컨소시움은 총 46억불(34억 유로)을 투자하여 선석 100개 규모의 연간 처리능력 9,900만톤의 항만(수심 17m)을 개발할 계획

※ 일부에서는 이라크의 현 경제여건과 인근 쿠웨이트 Boubyan항 개발 프로젝트(KMI국제물류위클리 제42호, 2010.2.10 참조)가 진행 중임을 감안시 동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



자료 : Lloyd's List 2010.4.9, Agence France Presse 2010.4.6

□ UAE Khorfakkan항, 「컨」터미널 3단계 개발 추진

- UAE의 Sharjah 정부는 Arabian Gulf 서쪽으로 Port Khalid 및 Hamriyah항, Oman Gulf 동쪽으로 Khorfakkan항 등 3개의 무역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Department of Seaports & Customs가 이들 3개 항만의 관리 주체
 - 이 중 Khorfakkan항이 대표적 “컨”항만으로 2009년에 275만 TEU를 처리
 - 1976년 설립된 Gulftainer사가 Khorfakkan Container Terminal(KCT)의 운영사



○ Khorfakkan항 “컨”터미널(KCT) 3단계 개발계획

- KCT는 현재 5선석 1,460m의 선석(수심 16m), 35만m²의 야드 등 시설을 보유 및 운영
- Gulftainer사는 그동안 KCT 1단계 개발(400m 선석)에 1억불, 2단계 개발(400m 선석 추가)에 8천만불을 투자하였으며 2단계 공사는 2010년 중에 마무리 예정
- 2단계 준공시에는 전체 처리능력이 연간 450만 TEU로 증가
- KCT는 2단계 공사 마무리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연간 1백만 TEU의 추가 처리가 가능한 3단계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



자료 : Department of Seaports & Customs, Gulftainer, Fairplay 2010.4.1

□ 베트남 Haiphong항 Lach Huyen Seaport 개발에 일본 Itochu사 참여

○ Haiphong항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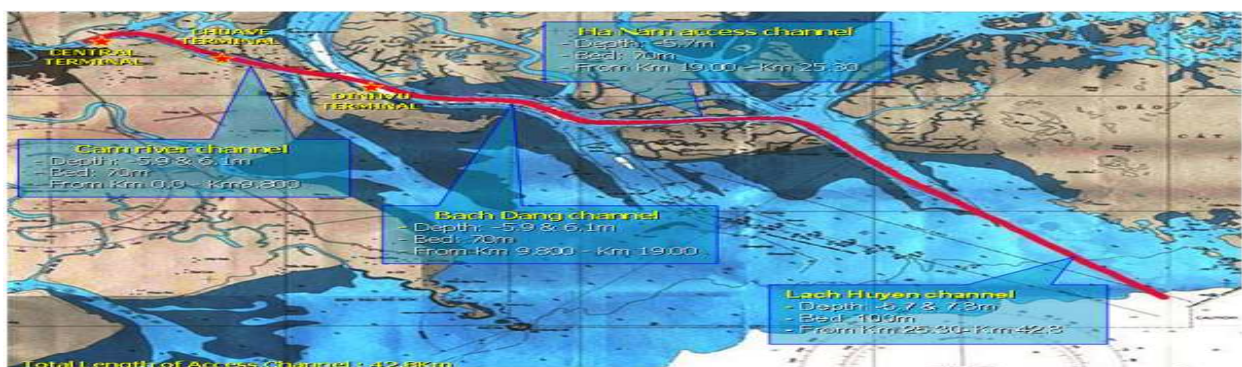
- 수도 하노이에서 약 100km 동남쪽에 위치한 베트남 북부지역의 대표적 항만
- 2008년 화물처리량은 1,380만톤으로서 이 중 컨테이너는 79만 TEU
- 전체 선석은 16개, 2,565m(수심 8.5m)로서 수심이 얇아 700~800TEU급 "컨"선만 접안 가능
- Vinalines(Vietnam National Shipping Lines) 산하의 Port of Haiphong사가 항만관리 및 운영의 주체

※ Vinalines사는 베트남 국영 지주회사로서 산하 60개의 계열사(Vosco, Viconship, Saigon Port, Danang Port사 등)를 통해 해운업, 항만운영 · 건설 및 물류업 등을 영위



○ Itochu사의 Lach Huyen Seaport 개발 참여계획

- 일본의 Itochu Group(伊藤忠商事)은 Vinalines사와 합작으로 Haiphong항에 Lach Huyen "컨"터미널 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최근 베트남 교통부에 제출
- 일본측이 1억 7천만불을 투자하고 베트남 Vinalines사가 2억 6천만불을 투자하는 합작형태
- 터미널 완공시에는 컨테이너 2개 선석을 포함한 11개 선석(2,700m)에서 3,500만톤의 화물 처리가능(최대 4,000 TEU급 "컨"선 접안 가능)



자료 : Vialines, Port of Haiphong, VOV News 2010.3.31

유재만 연구위원(☎ 02-2105-4964, yoojmn@kmi.re.kr)